

聖句

인자의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
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 주라 함이라
마가 10:45

63.11.28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輯 兼人 吳 允 台 滿
主 筆 田 榮



太平洋地區反共統一戰線提唱

李大統領台北訪問의 目的

李大統領은 지난十一月二十八日 兩元首가 發表한 共同聲明에도 나타나 있는바와같이 사정이 같은 兩國의 協力하여 共產勢力에 對峙하는것은 물론 아시아의 모든 自由國家가 反共戰線을 結成하는것을 望한다. 한편에서는 政治會議의 結果에 對峙하여 韓

國의 北進과 國府의 中國本土作戰을 同時에 開始하는計劃을 檢討하였으리라. 추측하고 있으나 下外務部長官은 一日「李大統領과 蔣總統은 二日計劃의 作成 또는 檢討는 하지 않았다」고 이를 否定하였다.

獨立韓國의 建設에 協力을 期待

美國 NCC 國連에 意見書提出

美國教會協議會에서는 會長 W 마틴博士 總務 E 반칸氏의 이름으로 國連의 美代表에 對하여 國連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九月中旬에 衆議委員會에서 선택한것인데 이 意見書에는 韓國의 平和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第二回世界教會會議

美國에 반 모론에서開催 防共問題와 日本側立場

美國 NCC는 韓國에서 UN 이 共產侵略을 防止한것을 支持하며 이제 敵對行爲를 停止한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今後的 解決에는 반드시 困難한 問題가 있을것을 認定하며 美國과 國連이 다른 諸

第二回世界教會協議會는 明年 여름에 美國에 반 스톤市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 基本主題는 「世界의 希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요 연구課題는 「信仰職制」 「社會問題」 「國際問題」 「平信職問題」 「宣敎問題」 인데 日本 基督教協議會(NCC) 에쿠메니

僑胞企業融資金利用에 對하여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있는 교포의 밀집한 경제생활을 염려하여 중소기업자의 융자금으로 이백만원이 오게되었는것은 진실로 반갑고 감사스러운 일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국민을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 되는 일이지 아니와 더구나 현재 우리 조국은 六二五사변이래 공산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하고 모든 시설이 여지없이 파괴된 오늘날에 있어서 외화 일부를 문자그대로 금 한덩어리라기 보다는 나라의 피 한방울 한방울에

비할수 있다 그러면 이번의 정부의 처사는 진실로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의 곤경을 본 부모가 그 피를 내서 보내는것이라고 할수있다. 실상으로 말하면 만일 일본에있는 교포들이 마치 외지에있는 화교처럼 경제적 지원이 튼튼하면 동남아의 조국의 부흥사업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당연할것인데 도리어 수단중의 조국정부의 고갈상태에 있는 주머니에서 일본에있는 교포의 기업을 위하여 그처럼 귀중한 국고금을 융통해 보냈다는것은 진실로 본말이

뒤집힌 일ियो 모순된 일 같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일본에있는 교포는 그 근본을 따져본다면 그동안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착취를 받아서 살길을 잃은 백성들이 마치 부자 지주에게 착취를 당한 소작인이 밭에 쪼달리다 못해 나중에는 지주집에 종살이로 얻어먹으려 들어가는 모양으로 일본본토로 건너와서 살게된 경제적으로나 표양으로 무능력자가 많았고 그다음에는 전쟁때에 강제징용으로 억지로 불려와서 기진맥진한 동포들이 그 다음을 점령하고있는 형편이니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바라기가 극히 곤란할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종전이후(일본복합이전)에 우리 교포들이 지나친 무욕과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는 감정과 최근의 평화선과 어업문제 내지 한일회담결렬의 감정으로 오는 은근한 경제적 압박으로 도저히 경제적 활동을 하고 살아가수 없는 형편에 있고 이러한 사정을 민간대표들이 국회에 참석하여 절절히 역설하므로 국회와 정부측에서도 이를 양해하여 금번의 조치에 이르게 된것이다.

이제 민간대표들의 성의와 공로가 적지아니한것도 치사 하거니와 대통령이하 국회와

無題錄

나는 요새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나서 뭐고 말고 가상스런 말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어찌하여 화장을 아니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는 말이 「우리 한국 여성들이 화장할 수 있게 되면 저도 하지요.」

이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나는 그에게 「최대의 미모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또 어떤 부인을 만났다.」

오라간만에 美國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노부인이다. 서양만에 다녀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좋은데 가셨으면 좋겠다.」

「오시지. 그렇게 빨리 오셨소. 세상도 요란하네.」

이렇게 물었다. 「그가 대답하는 말이

「참. 편찮아진 편찮아진다고 하네.」

「어디가? 공중? 물었다. 「아. 물어주지 않. 나는 잘 알리지.」

「바보가서 뭐에 앉은 것일고. 자꾸 이러.」

본국 생각만 나서 못견디어 오구만. 「고생하는 조국동포들과 같이 고생하시려고 오셨구만. 고생하십니까.」 나는 목이 매어서 이렇게 물었다.

이런 사정들이 참으로 한국 자다.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문제. 「그나. 지도자와 민중을 구별하는 자는 민중을 대신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고생을 대신.」

「우리중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何等의 誤重을 보이지 않았나. 「前記 李成世가 死亡한 자. 犯人三名을 拘捕하였나.」

「이러한 極右暴力反動勢力的인 反動運動은 極히 注目되는 바이다.」

정부의 성심을 더욱 고맙다. 하지만 할수없는 바이다.

그런즉 우리 표포는 이 일 을 결코 만족히 생각지 말고 위에 말한바와 같이 마치 가난한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의 절박한 곤경을 측은히 여겨서 자기의 피를 팔고 몸을 팔아 보낸줄 알고 눈물로 이것을 받고 조심조심하는 태도로 이것을 취급 하고 전전공공하는 심정으로 이를 살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 들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에 관계하는 이들이 가장 애국적양심을 가지고 가장 지혜있고 주도한 관찰과 계획을 가지고 처리하고 사용

정부의 성심을 더욱 고맙다. 하지만 할수없는 바이다.

그런즉 우리 표포는 이 일 을 결코 만족히 생각지 말고 위에 말한바와 같이 마치 가난한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의 절박한 곤경을 측은히 여겨서 자기의 피를 팔고 몸을 팔아 보낸줄 알고 눈물로 이것을 받고 조심조심하는 태도로 이것을 취급 하고 전전공공하는 심정으로 이를 살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 들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에 관계하는 이들이 가장 애국적양심을 가지고 가장 지혜있고 주도한 관찰과 계획을 가지고 처리하고 사용

「고생하는 조국동포들과 같이 고생하시려고 오셨구만. 고생하십니까.」 나는 목이 매어서 이렇게 물었다.

이런 사정들이 참으로 한국 자다.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문제. 「그나. 지도자와 민중을 구별하는 자는 민중을 대신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고생을 대신.」

「우리중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何等의 誤重을 보이지 않았나. 「前記 李成世가 死亡한 자. 犯人三名을 拘捕하였나.」

「이러한 極右暴力反動勢力的인 反動運動은 極히 注目되는 바이다.」

정부의 성심을 더욱 고맙다. 하지만 할수없는 바이다.

그런즉 우리 표포는 이 일 을 결코 만족히 생각지 말고 위에 말한바와 같이 마치 가난한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의 절박한 곤경을 측은히 여겨서 자기의 피를 팔고 몸을 팔아 보낸줄 알고 눈물로 이것을 받고 조심조심하는 태도로 이것을 취급 하고 전전공공하는 심정으로 이를 살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 들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에 관계하는 이들이 가장 애국적양심을 가지고 가장 지혜있고 주도한 관찰과 계획을 가지고 처리하고 사용

정부의 성심을 더욱 고맙다. 하지만 할수없는 바이다.

그런즉 우리 표포는 이 일 을 결코 만족히 생각지 말고 위에 말한바와 같이 마치 가난한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의 절박한 곤경을 측은히 여겨서 자기의 피를 팔고 몸을 팔아 보낸줄 알고 눈물로 이것을 받고 조심조심하는 태도로 이것을 취급 하고 전전공공하는 심정으로 이를 살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 들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에 관계하는 이들이 가장 애국적양심을 가지고 가장 지혜있고 주도한 관찰과 계획을 가지고 처리하고 사용

정부의 성심을 더욱 고맙다. 하지만 할수없는 바이다.

그런즉 우리 표포는 이 일 을 결코 만족히 생각지 말고 위에 말한바와 같이 마치 가난한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의 절박한 곤경을 측은히 여겨서 자기의 피를 팔고 몸을 팔아 보낸줄 알고 눈물로 이것을 받고 조심조심하는 태도로 이것을 취급 하고 전전공공하는 심정으로 이를 살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 들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에 관계하는 이들이 가장 애국적양심을 가지고 가장 지혜있고 주도한 관찰과 계획을 가지고 처리하고 사용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望聲

人事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 鄭長老(新生活生會總務長夫人)身患治癒大星 來日(夫人 東大附屬醫院入院加療中)

○ 金典牧師(在日韓國YMCA總務)十二月七日歸任

○ 金在和長老(本社總務)十二月四日本社來訪

○ 許君(長老)本社總務(十二月六日本社來訪 總會用務室 西南地方에 出張)

社告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公告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公告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來十六日附의 大號는 事情에 依하여 休刊하오니 讀者와 各支社에서는 양해하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二月九日 福晉新聞社

關西에서는連合查經會

東京・名古屋에서부흥회개최

在日各教會新年行事決定

금년에는 대외전도에 총 역 할을 집중함은 재일본 한국 교회에는 예년과 같이 오는 새 해, 정초부터 각 교회에서 도사 경회 또는 부흥회를 개최하여 내적 부흥과 신앙의 충실을 꾀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초 행사를 결정하였다 한다.

△關西地方各教會

관서지방에서는 一月四日 아침부터 七日까지 관서지방 도사 경회를 여는데 장소는 京都와 大阪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모일것이라는데 京都, 新橋(一賀) 高槻지방은 京都교회에서 阪神지방은 大阪教會(東成區大成通)에서 모이는데 강사는 관서지방내의 교직자로 선정하여 大阪에 李春仁, 池正全, 南보라, 金元治, 各牧師 및 朴두성, 傳道師이고 京都에 田永福, 丁인수, 타요한각牧師 및 金경찬, 傳道師이며 이 밖에 외부에서의 강사로 오윤태, 金우현, 兩牧師도 兩會場에 청빙하기로 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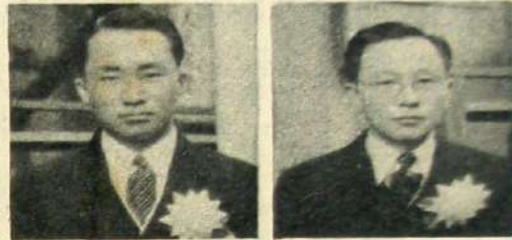
△東京教會

東京교회에서는 一月七日부터 十日까지 金우현목사를 강사로 청하여 부흥회를 개최

△名古屋教會
名古屋교회에서는 一月一日부터 六日까지 名古屋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는데 강사

大阪教會金部化金官玉

兩長老將立式



사진은 김군화 김관옥 양장로

기도와 김원목사의 성령강림(갈 6장 1-5)이 있은후에 관서지방회장 정인수목사의 '침을 지라'라는 문제의 설교가 있고 계속하여 '장로와 교회에게서 약이 오고' 두분 양수례를 행하고 정도부장 정영목사의 열렬한 권설말씀을 듣고 기념품전정이 있은뒤에 총회대표로 유석준장로 관동지방회대표 박명준목사의 축사가 있고 남보라목사의 축도로 폐회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신기교회설립예배

결현당식거행

지난 총회에서 독립교회로 인증을 받은 신기교회에서는 지난 十一月二十四日 오전十一시 반에 설립예배 겸 신축교회현당

내가宣教師라면

俞錫濟

내가 선교사라면 하는 말을 쓸때는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 는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말이 될것이며 선교사를 어느 정도 절제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금으로 부터 十八年前에 入信하였으나 선교사를 정속해보고 직접관여된것은 불과 오년밖에 안된다 이러한 짧은 기간에 내觀察이 決코 完全하다고도 할수없을것이고 또 내가 절제한 선교사라야 그렇게 많지않으므로 전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조국이 해방전후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서 하는일 정도하는 일들을

옛날과 체현한 나로서 어떤 때는 너무나 애타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분도 나며 어떤 때는 감사가 마음이 생기어 원망도 하다가 그래도 만리이국에서 타민족을 위하여 온 선교사가 얼마나 고마우며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는 감사의 생각이 떠올라 참고 참아왔으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취할 태도가 아니고 그이름을 참으로 높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있는 요구와 포부를 솔직히 발표하여 피차가 는평을하고 검토하도록 하는것이 복음전파의 도용이며 모든

것을 회생하고 선교하려는 선교사 여러분의 노력이 잊히지 않을까 하여 내 졸렬을 말한다. 내가 선교사면 첫째로 할일은 선교지구 선택에 깊이 생 각하고 있을것이다 내가 어느 나라 민족에 가서 선교할 자로와 적당한 믿음과 자격을 소유하였는가에서 부터 시작할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임지에 왔다면 먼저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와 민정, 심리, 풍속등을 연구하고 배워야 할것이다 믿음과 풍속을 분명히 구별하여 그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것과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교와 어떤 점에 상 치되는지를 잘 알아서 믿음의 결자를 넣어 줄것이다.

둘째로 내가 할일은 그 민족과 그 지역에 사는 생활방법과 습관에 통화되어야 할것이며 내가 가지고온것보다 못한 것은 점진적으로 신앙을 통하여 고쳐야 할것이다 거기에 는 주력, 음식, 의복등에 항상 고려해야 할것이며 내 생활정도도 그 주민보다 너무 높아 지지않도록 할것이다 음식과 옷은 별문제가 없을것이다 주력은 언제든지 교인과 교회들 중심하여 정할것이다.

셋째로 내가 할일은 예수를 먼저 믿은것을 감사할지언정 우월감으로 선교를 받는 사람 들보다 내 믿음이 훌륭하고 적당하다고는 생각해서 안된다 는데 항상 반성하고 조심할것이다 내가 생각하는것은 선교사로 당연한 일이라고 자기고

할일 많은 祖國이 그리워

吉鎮京牧師와朴女史의歸國談



사진은 박이

한국기독교의 개척자로 한 사람인 동시에 학자요 또 부흥목사이던 김진주(吉津) 목사의 영신 김진경목사(金金)는 一九五〇년에 미국에 건너 가서 아이오와주 유복대학에서 삼년동안 신학을 연구한 후에 박의문여사를 모시고 귀국하는 길에 지난 十一月二十六日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二十八日(토요일) 오후에 본사주일을 방문

식을 당회장 정영목사의 사 회로 거행하였다. 찬송가十八장을 노래하고 전 영복목사의 기도과 성경강독이 있은후에 총회서기 유석준장로 가 연혁보고를 하고 찬송가九四장을 노래하고 지방회 부 회장 이종현목사의 설교가 있 은후에 정인수목사의 주례로 서약이 있고 계속하여 선언이 있은후에 내빈축사를 듣고 남 보라목사의 축도와 축하식이 있

고 폐회하였다. 통교회 건국보기에 의하면 예년건국축비는 十七萬二千六百五十圓이요 주력건국비가 九萬一千七百七十九圓 합 二十六萬二千八百三十九圓인데 그중에 카 다다선교부보조가 十萬圓이요 경도교회 二萬圓 선교사유지 五萬二千圓 통교회헌금이 八萬一千五百四十圓, 부민교회헌금이 一萬二千八百圓이라고 한다.

世界聖書主日 에 대하여

十二月六日(主日)과 그후
 「주일을」세계성서주간으로 정하여 지키므로 온 세계의 신자들이 성경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울러 성서공회사업을 들기로 되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성경에 대한 인식과 연구 및 보급에 대한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자로 기록되어서 책으로 인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읽을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다. 예로부터 성경을 읽어서 천문에 빠

주니까 평안하지는 참 평안하지만 그래도 본국의 일을 생각하면 꼭 바늘방석에 앉았는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온다고 하니 내 아들도 매우 섬심히 생각하든걸요. 귀국하면 아직 부산에 하교방에 있으렵니다. 본국에는 늙은이라도 할 일이 많답니다.

에서 예수교와 정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도 교회와 선교사를 이용하여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이 많이있는것을 알고 해야 할것이다. 아흔째로 이상 여러가지 사정을 잘 알기위하여 말을 잘 모를지라도 각지방교회와 그 교회에 하는 집회에서는 어떤 회합이라도 가보고 배우며 지도하며 피차가 인간적으로 건이 교제가 될수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열째로 선교사는 어느나라 국적을 가지었든지 자기국적가와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엄정 중립적 태도로 나아가야 할것이며 정치적 색채라든지 국가의 세력을 의뢰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삼는것 같은 행동이나 그러한 생각조차 가지어서 안될것이고 보여서는 절대로 참된 예수교신교는 못할것을 각오해야할것이며 오히려 피선교자들과 감정이 대립될것

다. 동양의 해아할것이다. 지금 동양

지계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二차대전이후에 각국에서 성경출판사업이 대단히 완성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것은 현저한 사실이며이와 우리나라의 성서출판은 동년과 기타 관계로 대단히 미약하여 한글성서 신약이 출판된것뿐이다. 성서출판은 다른 출판사업과 달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하여 하기때문에 결정을 각오하고 열가로 방대한것이이니 믿는자와 교회는 마땅히 그 사업을 도울 의무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자기만 성경을 가지고는것으로 만족할것이 아니라 성경을 못가진이와 안믿는이에게서 감옥에 있는이에게 성경을 사서 기증하도록 힘쓸것이다. 외국에는 성경을 각호텔각방에 노아 격으로 하여금 보게하는「기드온회」가 있는 요한복음이나 기타 복음을 한글식 출판하여 불신자에게 보급시키는「포럼성경연맹」도 있으니 우리도 이러한것을 본받아서 성경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도와 성서공회사업을 협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것이다.

(新年)
懸賞論文募集
 問題韓日問題의根本解決策

一、文體(한글로 쓰되 平易한 漢字를 써어도 可함)	一、賞金 一等 一萬圓 二等 五千圓 三等 二千圓
一、字數制限 四百字十枚	

一、 마감期限 一九五三年十二月末日
 一、發表 一九五四年二月次號本誌
 一、應募資格 本紙一年代金先納者
 一、原稿보낼곳 福音新聞社

을 우려해야할것이다. 이상 몇가지로 내가 선교사라면 해야할것이라는것을 간절히 느끼게 되었으나 내 자신이 선교사가 되면 아마도 생각이



자진은 동경교회주일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풍경

특별이라 할수있으며 아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력은 전연 없는 미완성의 인간이므로 옆에있는 양친들은 자기육신과 같이 여기며 충실한 성장을 하게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특히 아등에있어서 계절이 바뀌는 시절에 몸을 조심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할것이며 항상 주부님들은 자기가 아등의 선행이 되어 일거일동에 이해를 가지고 조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기후에 변화가 많은 곳에서는 더구나 일상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낮에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변화가 많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에 옷입는것이 기온에 맞지않기 때문에 그 아동들은 벌써 몸에 조절이 좋지못하여 미열이 나도 양친들은 그리 주의하지않고있다가 고열이나 비로소 병원에 간다 약을 쓴다 합니다 그때에는 벌써 병은 중하여 폐열이 되거나 또는 기타 질병에 걸리고 고생하게 됩니다 이와같은것도 결국 양친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까닭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불의의 고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등은 일정한 발육과정이 있어서 유아에 한 해알수있지않나. 이러한 차가히알수있지않나. 이러한 차가 되고 기다린다. 그러나 참된 애국자의 모본과 전형(典型)은 예수에게서만 찾아 볼수 있다. 대중의 인기가 높아지고 신앙이 돌아와서 「왕」으로 세우라는 열렬한 기대와 계획을 단연히 거절하고 배척하신 예수, 당신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들의 죄를 질머시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다가 마침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애국자다, 이참된 애국자를 바라보고 이윽과 지위와 명예에 굽급하여 나라일과 교회일도 그르치는 애국자 지도자는 크게 책망을받고 심판을 받으라.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거짓 애국자를 배척하는 바이다. (끝)

한국 요리법

되 미 찜

재료 (오십분)

되미	중것한마리	물	한함
간장	네큰사시	갈분	세큰사시
기름	세큰사시	초	큰한사시
연근	조금	표고	네조각
당근	적은것반개	설탕	두큰사시

1. 되미를 정하게 바늘을 굵고 꼬리를 짜르고 내장을 떼어 씻어서 손가락 넓이 만큼씩 에어놓고.
2. 간장 적당한 분량에 초를 약간 섞어서 되미에 발라놓고.
3. 번철에 기름을 끓이고 되미를 기름에 앞뒤가 노랑게되도록 지져서놓고
4. 물 한함에 간장 두큰사시와 설탕 두큰사시 갈분 세큰사시 초반차사시를 넣고.
5. 여기에 연근과 당근 표고를 적당히 썰어서 함께 넣고 한참 푹푹 끓여가지고.
6. 적당한 그릇에 되미를 놓고 그위에다가 이 끓인것(4. 5번)을 부어서 놓고.
7. 계란을 지단 부쳐서 골파쪽처럼 썰어서 얹어 상에 놓을것이니라.

되 미 찜

재료 (삼인분)

되미 오십량중(새끼되 당근 다섯량중 미한마리)

우육	열량중	표고	큰한조각
간장	한큰사시	목이	여섯조각
파	한뿌리	석이	큰것두조각
마늘	반쪽	미나리	조금
호추	조금	밀가루	한큰사시
깨소금	한큰사시	계란	한개
기름	한차사시	숙갓	한단
물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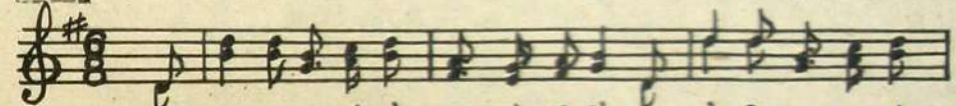
1. 되미의 바늘을 말갹게 굵고 내장을 꺼내고 정하게 씻어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채썰고 간장 차사시로 하나과 마늘을 이겨서 넣고 호추가루와 깨소금을 넣고 기름을 쳐서 잘 섞어 놓고.
3. 당근을 골파쪽처럼 얇게 썰어서놓고
4. 표고와 석이 목이는 골파쪽처럼 썰어놓고.
5. 미나리는 초대물 부쳐서 골파쪽처럼 썰고(초대 만드는 법을 참고)
6. 계란은 지단을 부쳐서 골파쪽처럼 놓고.
7. 남비에 숙갓을 넣고 고기 약념한것을 넣고 생선을 올려놓고 그위에 여러가지 준비한것을 색스럽게 위에 놓고 물을붓고 간을 맞추어서 끓여가지고 함께 모양있게 담아서 상에 놓느니라.

크 리 스 마 스 노 래

(유년부용)

목자여 이리 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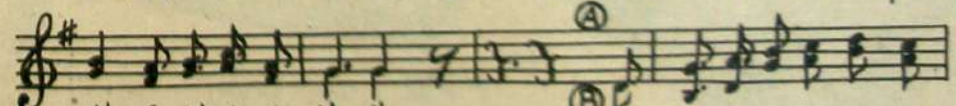
임성길 요
German



1. 양 치 는 목자여 이 리 오라 그 양을 두고서
 2. 그 구 유 앞에 가 경배 하고 또 아기 머리에
 3. 다 기 뵈 노 래로 축하 하세 또 거한 예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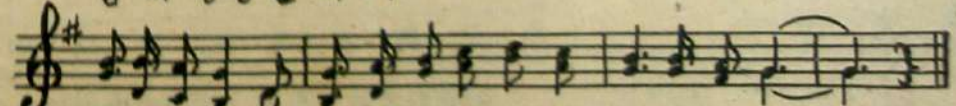


이 리 오 라 천 사 의 가 리 림 대 로 나
 축 복 하 라 줄 기 는 노 래 를 불 러 주
 바 처 기 세 노 래 로 기 록 드 리 고 주



신 주 찾 아 가 보자.
 남 께 영광 돌 리 세.
 남 께 영광 돌 리 세.

참 거 하고 복 되 신



구 주 시 라 참 거 하고 복 되 신 구 주 시 라.

×윤창시는 B班의 한小節뒤를 따라가고 후렴에서 함께 부르게 된다

서부터 점점 발육에 따라 요 구되는 영양이 충실히 공급되 여야만 건강을 유지할수 있을 라든가 항가타루등 기타 복잡



田榮澤作

청천벽력의 운명(2)

「웬일이유 오물은 무어 잇

어버리셨소?」

명애는 무슨생각을 깊이하면

서 타든 꼭조를 다시 손으로

만 가만 가만히 하고있는데

뜻밖에 태호가 전달리 우물한

모양으로 어청어청 들어온다

언제나 명난한 태호가 우물할

작에는 반드시 무슨 졸연치

아니한 중대사건이 잇는 경우

였다.

「당신은 태평하구려!」

「어서 들어오서요 그럼 태평

해야지 태평치 못해야 돼요?

「한가하단 말이요 아이구 태

리 아파 나 좀 놀테야?」

「웨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

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 말하기

싫어 나 좀 놀테야 좀 잘테

야」

태호는 침방에 들어가서 파

라 틀어간 명애에게 옷을 확

확 벗어 던지면서 이렇게 짜

증을 낸다.

「어서 누서요 누가 지루시지

마시려요? 좌우간 이야기를 좀

하시구려 시언히」

서「여보 봉구씨 대관절 회사

에 무슨 일이 있소?」

「일 없어요」

봉구는 억지로 짓는 웃음으

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지 말구 이야길 해요

나보구 다 이러긴가 사를을

무시하구들 그래」

하면서 명애는 성을 냈다.

「아주머니 그렇게 성 내실거

야 있어요? 집안에서 걱정하

실가바 그러시오 오늘 아침에

현병대에서 와서 회사장부를

다 가져갔답니다。」

그리자 막 밖에서 대문 흔

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여보 여보 주인 있소 이집

이 윤태호네 집이요?」

봉구와 명애는 눈이 둥그래

서 서로 바라보다가 할수없이

봉구가 나가서 대문을 열었다

정복한 현병 두사람이 두박

두박 들어섰다.

「윤 태호씨 계시오」

「네네 계시니다」

봉구는 어쩔줄을 모르고 당

황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방으

로 들어갔다 명애와 잠간 수

근수근 이야기를 하였다.

「잠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현병에게 말하고 안

뜰에 잇는 태호의 침방으로

명애가 먼저 들어가고 봉구가

따라들어갔다 잠간 지체하여

태호가 나와서 현병을 칭하여

옹졸실에 틀어박치고 담배와

차를 권하였으나 그들은 담배

한개를 받아 피우고 일어나면

서

「대장님께서 잠간 물어볼 말

이 있다고 곧 오시랍니다. 잠

간 다녀오십시오」

「잠간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좀 하구요 그리고 나 옷 좀

갈아입구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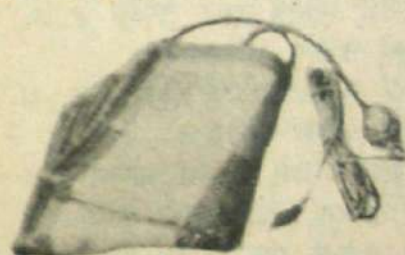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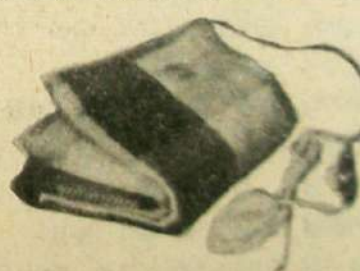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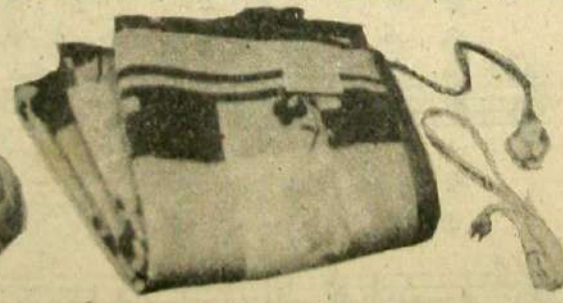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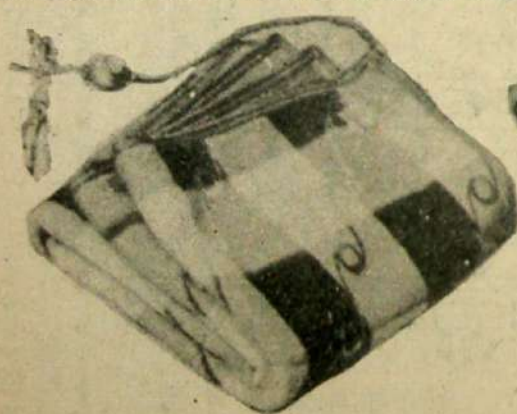
「아니 그럴 시간 없어요 어

서 잠시다」

이리하여 태호를 태운 자동

차는 달려가고 명애와 봉구는

잠시 말이 없이 서 있다.



●座布團型 (50cm×50cm)
四段溫度調節 (OFF, 10W, 20W, 40W)
¥ 4,000.-

●小型 (55cm×110cm)
六段溫度調節 (OFF, 5W, 10W, 20W, 40W, 80W)
¥ 6,700.-

●中型 (70cm×150cm)
六段溫度調節 (OFF, 10W, 20W, 40W, 80W, 160W)
¥ 10,000.-

●大型 (100cm×150cm)
六段溫度調節 (OFF, 15W, 30W, 60W, 120W, 240W)
¥ 15,000.-

通 産 業 省 電 氣 用 品 型 式 承 認 済

最新型電氣毛布 // 優美溫度調節器付 //
現金取引 // 製品保証付 //

ダイヤモンド電氣毛布製作所

東京都江東区白河町 2・6

(通商産業大臣製造免許第2398號)

特長
(1) 溫度調節自由
(2) 折疊自由
(3) 電氣代金一日使用
(4) 電氣代金一日使用
代金0四円以下



●婦人科檢診台用 (50cm×40cm)
四段溫度調節 (OFF, 10W, 20W, 40W)
¥ 4,200.- ビニールカバー 500.-

全国有名デパート特約店から求
め合います 地方特約店予約中
が だ ろ う 進 呈